불자교수들, 미래세대 포교에 힘모은다

교불련 30주년 앞두고 각종 사업 전개


2월 27일 열린 교불련 창립29주년 기념법회에서 참석한 불자교수들이 미래세대 포교를 서원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 번째가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다.

불자교수들이 교수불자연합회 창립 30주년을 기해 대학생을 비롯한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29주년 기념법회와 제3회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교수불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3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포교를 위한 대중포교지 발간,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등을 결의했다.

먼저 대학생들을 위한 대중포교지는 올해 총 3회 발간된다. 가장 먼저 8월 중 발간되는 〈전환기, 불교에게 길을 찾다〉(가칭)는 쉬운 불교상식과 이야기가 담긴다. 교불련은 9월 개강하는 새 학기에 이 책자를 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말 발간되는 2권은 1권에 비해 한 단계 심화된 불교 길라잡이 서적으로 각종 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중점으로 제작된다. 2018년 상반기에 발간되는 3권은 30주년 행사 결과 및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학생 포교지 연 3회 발간
대학불교네트워크 연내 구축
'전환기 한국불교' 심포지움도

이와 함께 교불련은 포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협의해 '대학불교네트워크'도 올해 안으로 창립하기로 했다.

또 6월 말에서 7월초 해남 대흥사에서 열릴 예정인 2017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특별세션 '전환기의 한국불교'도 마련된다. 올해 9~0월 중 '전환기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한 · 일 심포지움도 개최된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장은 "교수불자들이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세대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래포럼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붓다로살자, 신행혁신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 미래를 위한 대학생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다.

지홍 스님은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한국불교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불교 인구가 300만명이 감소하여 2위 종교로 떨어진 현실"이라며 "기존 불교에 접근하는 신행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지성인들의 집합체인 교수불자연합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미래세대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가르침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법회 창립을 축하하며 공연을 펼친 봉은사 연화합창단 모습.

"전법 등불 밝히길" 봉은사 지역법회 창립

2월 26일 창립법회 봉행, 7개 지역 연등장 임명

강남 지역 포교 진흥의 구심점이 될 봉은사 지역법회가 창립됐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26일 경내 법왕루서 지역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400여 신도들은 이날 자리서 지역법회 창립을 자축하고, 지역법회를 통해 활발한 신행 및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최은주 봉은사 신도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역법회는 이웃에 사는 도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널리 권하고 권해 포교와 전법의 등불을 밝힐 터전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으로 비춰주사 봉은사 불자들의 새 출발을 호념해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억겁의 세월을 헤매도 만나기 어려운 귀한 불법을 만났으니 게으름과 교만함을 버리고 늘 공부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불퇴전의 신심으로 발심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역법회는 지역별 도반모임으로, 지역법회 회원들은 이를 주축으로 신행 ·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그간 불교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수료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등'이 기초학당을 나오지 않거나 '연등' 활동을 하지 않던 신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 점을 보완, 신행 · 봉사활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봉은사 새신도 및 봉은법회 미활동 신도도 참여 가능하다.

앞으로 봉은사 한원덕 신도회장과 최은주 신도부회장이 각각 지역법회장 · 부회장을 맡아 활동한다. 이밖에 지역법회 각 연등장으로 △강남(연등장 이향숙) △서초(연등장 신동숙) △송파(연등장 유순자) △경기(연등장 오화란) △지장(연등장 조혜선) △문수(연등장 김미선) △직능(연등장 박민호) 총 7명이 임명됐다.

이날 원명 스님은 "강남 지역 포교를 위해 반드시 지역법회를 창립해야겠단 마음이었다. 오늘 첫 출발의 자리에 많은 신도들이 모인 걸 보니 더없이 기쁘다"며 "봉은사가 포교의 제1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법회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열심히 펼치며,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여성광장 위한 음악회 연다

여성개발원 2017 신년 계획

여성불자들의 쉼터가 될 회관 건립을 위해 불교여성계가 음악회를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2월 23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진행했다.〈사진〉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음악회를 10월 12일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불교여성광장은 불교여성 교육과 쉼터를 위한 1000여 평 규모의 공간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기금 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번 기금 모연 음악회를 위해 3월 13일 오후 4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제8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은 5월까지 사찰 및 교계단체, 기존 108인에게 추천을 받을 예정이며 2년 내 교계 언론과 DB를 검토해 6월 중 선정한다. 노덕현 기자



"막바지 추위, 따뜻하게 이겨내세요"

아름다운동행, 2월 27일 독거어르신 온수매트 지원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2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자비나눔행이 펼쳐졌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온수매트 25개씩 총 50개를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온수매트는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아이연탄맨 캠페인 동참으로 이뤄진 것이다.

원스토어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 등을 통해 1181만 7100만원을 모연, 어르신 난방류 구입을 목적으로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원스토어 측은 "해피빈을 통해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알게돼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마련했다"며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2017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온수매트를 각각 25개씩 총 50개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온수매트는 종로구 쪽방촌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다.

앱 마켓 '원스토어' 후원
종로지역 50가구에 전달

전달식 후에는 종로구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의 독거어르신 가정에 온수매트가 전달됐다.

온수매트를 지원받은 이현구(75세) 씨는 "막바지까지 추운겨울에 이렇게 온수매트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금을 지원해 준 원스토어에 감사하다.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17년도 우리 사회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연탄맨 캠페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여성 만을 위한 3박 4일 사찰 쉼터

평창 월정사, 제3기 여성출가학교 개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3기 여성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출가학교는 3박 4일간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9일에는 입재식 및 108염주 만들기가 진행된다. 10일엔 전나무숲길 걷기명상을 비롯해 차향명상, 발우공양, 선재길 걷기, 성불도, 서로부처되기, 우리는 위로받아 마땅하다 등이 진행된다. 11일에는 특강과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연꽃등만들기, 달빛포행, 스님과의 대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적멸보궁 참배도 진행된다.

신현임 월정사 출가학교 팀장은 "13년 간 출가학교를 운영해오며 주부들의 경우 한달 가량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합격해도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부 및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뎌진 오감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가져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33)339-6777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